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6. 21. (월) 배포</p>			
보도일		<b>2021. 6. 22.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 <b>인터넷·방송·통신 6. 21.(월) 12:00 이후 보도 가능</b>			
담당과		특수교육정책과		담당자	
				과 장 김선미 (☎ 044-203-6569)	교육연구원 진창원 (☎ 044-203-6563)
				교육연구사 김길태 (☎ 044-203-6907)	

## 2021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우선 등교로 일상회복 앞당겨

- ◆ 1학기 특수학교 100%, 특수학급 97.9% 등교수업 실시
- ◆ 교육회복 위해 장애학생 가족지원 및 행동중재 지원 사업 추진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배움 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(급) 학생들의 등교수업 현황을 점검하고, 이를 통해 2학기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.
  - 특수학교(급)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학생의 학습결손 및 행동 문제, 사회성 저하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올 3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.5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였다.
- 2021년 1학기 등교수업 점검 결과, 특수학교는 100%(187개교),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는 97.9%(8,545개교)가 전면 등교를 하고 있으며, 방과후학교 참여율\*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【 특수학교(급) 등교수업 운영 현황 (2021.6.15. 기준) 】

구분	학교 수(학급 수)	1차 조사 (3.5)	2차 조사 (4.16)	3차 조사(6.15)
특수학교	187 (5,114)	99.5%	100%	<b>100%</b>
특수학급	8,743 (12,048)	84.8%	93.4%	<b>97.9%</b>

\*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비율: (특수학교) 2019년 81.7% → 2020년 25.4% → 2021년 66.3% / (특수학급) 2019년 79.2% → 2020년 32.4% → 2021년 77.9%

- 그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등교수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특수교육 종사자(교직원, 보조인력 등)에게 백신접종을 우선 추진하였고, 지원인력 확대 배치, 기숙사 및 학교버스 밀집도 조정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.

【 특수학교(급) 지원인력 배치 현황 (2021.6.4.기준) 】

추가 배치 인력			상시 배치 인력
한시적 기간제 교원	예비특수교사 등	방역 등 보조인력	특수교육 보조인력*
259명	31개 대학 579명	1,822명	특수학교 4,614명 특수학급 8,880명

\* 특수교육보조원, 사회복지무요원 등

- 또한, 정서·행동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지원센터(대구, 경기, 충북, 전북, 경남 5곳)를 지정·운영하고 있다.
- 2021년 3월 개학 이후 6월까지 특수학교 확진자는 총 28명(학생 23명, 교직원 5명)으로 전년도 지역별 대유행시기(2020.12.~2021.1, 52명)보다 확진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.

【 특수학교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추이(2020.2.~2021.6.) 】



- 2021년 2학기에 도 장애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-가정-학교 연계를 통한 정서·행동지원\* 및 가족 지원\*\*을 강화할 계획이다.

\* 주요내용: 행동중재 전문가 150명 양성, 행동중재프로그램 600명 지원

\*\* 지원규모: (학생) 3,000여 명, (형제자매) 2,500여 명, (가족) 4,500여 가족 등

- 또한, 원격교육 경험을 미래교육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장애유형별 웹 접근성이 보장된 원격교육 프로그램(플랫폼)과 가상·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(학생·학부모용 80여 종) 등을 개발·보급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, 학부모단체 및 교원단체, 특수교육 전문가, 시도교육청과 상시 소통 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추진하는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.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이 전면 등교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교직원과 학부모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.”라고 말하며
  - “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편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3단계까지 전면 등교 원칙을 유지하고,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